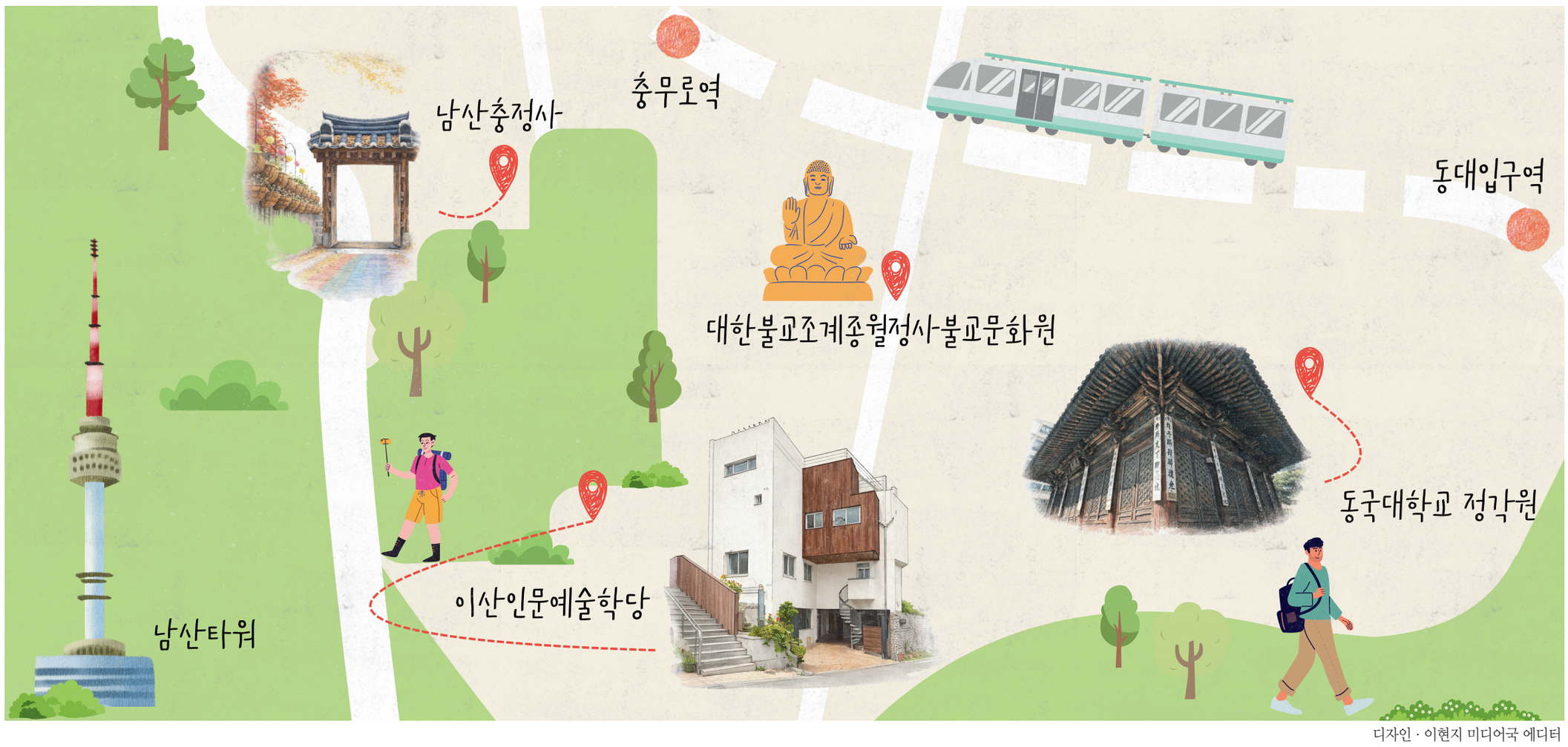


디자인 · 이현지 미디어국 에디터

빌딩 숲 사이, 가장 조용한 수행 지도가 펼쳐진다

〈地圖〉

B is Hip! B - Spot 서울 중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우리 머릿속 불교는 늘 산에 있었다. 사찰은 깊은 숲에 있고, 수행은 일상에서 떨어져 있다는 인식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불교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출근길 동선 위에 있고, 대학 캠퍼스 안에 있으며, 강연장이자 문화 공간의 얼굴로 우리 곁에 나타난다.

서울의 심장부, 중구(中區)는 그 변화가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곳이다. 금융과 행정, 관광과 상업의 중심지로 알려진 이 도심 한가운데 뜻밖에도 포교당, 대학 법당, 작은 도심 사찰, 인문 예술 공간들이 곳곳에 모여 있다. 중구 길을 걷다 보면 소음은 어느새 배경음악이 되고 마음의 소리가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역사의 굴곡이 빚어낸 '불교의 요람'

서울 중구에 불교 관련 기관이 밀집한 현상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극복의 서사가 녹아 있다.

일제강점기 불교계가 민족 교육을 위해 세운 동국대가 남산 자락인 필동에 자리 잡으며 학술적·문화적 구심점이 됐다. 근현대 불교가 대중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서울의 중심으로 온 것이다. 조선 시대 억불정책 속에서도 도성 안팎을 연결하던 중구 일대는 근대 불교의 부활과 함께 자연스럽게 중심지가 됐다.

배움의 법당, 동국대 정각원

가장 먼저 발길이 닿는 곳은 남산 품에 안긴 동국대 정각원(正覺院)이다. 이곳은 단순한 학교 부속 법당이 아니다. 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 동국 가족의 신앙심 증장과 다양한 신행활동을 돕고, 펼치게 하는 불교 중흥과 전법 포교의 중심도량이다.

캠퍼스의 젊은 활기와 법당의 묵직한 공기가 섞여 묘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정각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각원 앞 마당에서는 스님과 학생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시험 기간에는 책가방을 멘 학생들이 잠시 들러 마음을 가라앉힌다. 법회가 없는 날에도 법당에는 늘 사람이 있다. 스마트폰을 끄고, 이어폰을 빼고, 잠시 멈춘다. 묵언으로 앉아 있는 학생,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인근 주민들까지. 정각원은 종교 시설이면서 동시에 도심 속 공공 명상 공간으로 기능한다.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02-2260-3016

도심 속 분명한 존재감, 남산충정사

필동 골목으로 들어서면 규모는 작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지닌 남산충정사(忠正寺)를 만난다. 고층 빌딩과 오래된 주택이 뒤섞인 공간 속에서 충정사는 마치 시간을 붙들고 있는 듯하다. 충정사는 대형 사찰과는 다른 결을 지닌다. 눈에 띄는 탑도, 화려한 전각도 없다. 대신 이곳에는 익숙함이 있다.

신도 대부분이 인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로, 사찰은 자연스럽게 동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한다.

더불어 점심시간, 잠시 짬을 낸 직장인들이 향 냄새를 맡으며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가는 은신처 같은 곳이기도 하다. 도심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생활 불교'의 현장이다. 최근에는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충정사의 충(忠)은 중심 또는 충무로(忠武路)라는 의미가 있으며 호국충절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한다. 서울 중구 퇴계로34길 26. 02-2279-5538

사유 깊이 더하는 이산인문예술학당

불교는 종교이지만 거대한 철학이자 예술이기도 하다. 충무로 인근 골목 안쪽에 자리한 이산인문예술학당은 전통적인 사찰이나 법당의 형식과는 다르다. 법문 대신 강연이 열리고, 시와 음악, 철학과 불교가 자연스럽게 섞인다.

불교의 지혜를 현대적인 인문학과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는 공간으로, 불교는 이곳에서 종교라기보다 사유의 토대로 기능한다. 수행과 명상, 불교철학이 현대 인문 담론과 만나며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 이곳에서 열리는 강좌나 명상 프로그램은 종교적 장벽을 허문다.

참가자들은 스님뿐 아니라 학자, 예술가, 시민들이다. 학당을 찾는 이들의 얼굴엔 진지한 탐구심이 서려 있다. 텍스트로만 접하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인의 고독과 맞닿아 위로로 변하는 순간이다. 이산인문예술학당은 중구 불교 공간이 단순히 신행의 장을 넘어, 지적·문화적 교류의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서울 중구 퇴계로36나길 18 한옥마을 뒤뜨레 1층. 02-2275-0108

오대산이 도심으로…월정사불교문화원

마지막 발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불교문화원으로 향한다. 강원도 평창 오대산의 전나무 숲길을 걸어야만 만날 수 있었던 월정사의 정신이 서울의 중심부로 옮겨 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심 포교 전진기지'. 소박한 법당에 출근 전 잠시 들러 합장하는 이들, 점심시간을 쪼개 명상에 참여하는 직장인들, 퇴근 후 법문을 듣는 중년 신도들이 모여든다.

수행 후에는 차 한 잔을 마시며 통창 너머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자. 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 사람들의 아우성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득해진다. '도심 속의 산사'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곳이 있을까. 서울 중구 필동로 32 5층. 0507-1380-8701

중구의 불교 스폿을 잇는 이 길은 단순한 순례길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소음의 바다에서 나만의 '부표'를 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왜 그토록 바쁘게 뛰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이토록 숨 가쁘게 살아가는가? 중구의 낡은 골목과 불교 공간을 오가며 던지는 이 질문들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하게 만든다.

새해에는 가벼운 운동화 차림으로 중구를 걸어보면 어떨까? 정각원의 고목 아래서 바람 소리를 듣고, 문화원에서 차 향기에 취하며, 학당에서 지혜의 문장을 찾아 보자. 빽빽한 빌딩 숲 사이,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한 뼘의 빈 공간이 그곳에 오롯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시작되는 곳
복합문화공간, 피아크
PARK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195번길 180 051-404-9200

대한불교조계종 연예인전법단
단장 우봉
– 임원 · 회원 일동 –
■ 연예인전법단이 하는 일 : 전국사찰노래자랑, 산사음악회, 포교사업, 불자연예인 발굴을 위한 예체능 인재양성 프로젝트 개발, 봉사활동(사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병원), 어르신을 위한 잔치 등 불교대중화와 포교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338호
☎ (02)725-0108 FAX (02)734-0779 / 010-3573-0108